

‘귀하신 몸’ 낙지, 육지 목장서 키운다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낙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고소득 갯벌 수산자원인 낙지 새끼의 육상 수조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13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국제갯벌연구소는 지난 5월 진도 해역에서 포획한 어미 낙지 암수 400여 마리를 짝짓기와 산란(2개월), 부화(3개월) 등을 거쳐 어린 낙지를 생산중이다.

최종 생산될 어린 낙지는 1만여 마리로 예상되며, 11월 말까지 낙지 목장으로 조성중인 신안 장산해역과 무안 탄도만 해역, 진도 초사리 해역 등 서남해안 일대에 방류할 예정이다. 특히 낙지는 한곳에 함께 있을 때 서로 공격하는 ‘공식현상’이 심한 만큼 번거롭긴 하지만 낙지별로 부화하자마자 3일 안에 방류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다.

이번 육상 종묘 성공의 주역은 전남 국제갯벌연구소 내 김혜선 연구사이다. 김 박사팀은 그동안 짝짓기에 성공한 암컷 낙지 180여 마리가 육상수조에서 무사히 부화할 수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종묘 대량 생산 성공 육상수조서 산란·부화 어린낙지 1만마리 방류

있도록 5개월간 휴일은 물론 명절도 반납한 채 정성을 쏟아왔다. 여기에 연구센터 배양동에 2억원을 들여 바닷물 냉각시설과 자동공급 시설, 순환·여과장치 등 최첨단 종묘생산 시스템을 갖춘 것도 이번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전남도는 육상 수조에서 낙지 종묘의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부터 연중 10만마리 이상의



해안에서 예전보다 낙지가 절반 이상 감소해 산지에서도 낙지를 찾아보기 어려워 정도이며, 낙지 1마리당 1만원을 넘어서는 등 가격이 치솟고 있다.

낙지의 어획량 감소는 연안 갯벌 환경 오염을 비롯한 무분별한 남획, 까다로운 번식 습성, 주요 먹이인 칠게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에는 산란기인 지난 5~6월 고수는 지속적으로 산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낙지 생산이 더욱 급감한 상태다.

정병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지역에서 낙지로 인한 연간 소득이 900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주민의 중요한 소득원”이라면서 “지금까지는 수정한 알을 바다에 방류하는 정도였으나, 이번에는 육상에서 새끼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kroh@

광주에 국립야생동물보전연구원 설립

2016년까지 260억원 투입

광주에 국립야생동물보전연구원이 들어선다.

광주시는 “야생동물질병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국립야생동물보전연구원의 기본설계 용역비 2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기본설계용역을 거쳐 오는 2016년까지 국비 260억원이 투입돼 부지면적 3만㎡, 건축 연면적

6000㎡ 규모의 야생동물보전연구원이 광주에 건립된다.

야생동물보전연구원은 야생동물에서 전이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사스, 구제역 등 인수공통 전염병으로부터 가족과 인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또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진단과 분석, 조사와 데이터 베이스, 기술개발 및 야생동물 보전관리 등 야생동물과 관

련된 다양한 연구시스템이 구축된다.

광주시는 연구원 유치를 위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축산업 종사율과 겨울철 철새 주 이동경로에 따른 질병 관리 필요성,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야생동물 증가 등을 내세우며 광주가 최적의 입지라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해왔다.

특히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유치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삼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국가에서 야생동물 질병 대응력 향상, 생태계 안전성 확보와 함께 야생동물의 질병 조사·연구를 직접 지원하게 됨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련 광주를 중심으로 분야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광주시 ‘빛 공해 방지 조례’ 제정 추진

광주시가 인공조명·오·남용에 따른 시민 민원이 속출함에 따라 ‘빛 공해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과다한 인공조명(빛) 사용에 따른 시민건강 침해와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광주시 빛 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는 빛 공해방지계획과 빛 환경관리계획 수립을 명시한 빛 공해 방지조례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광주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빛 공해 관리 심의를 위한 빛 공해방지위원회

운영,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빛 방사 허용기준 강화,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가 빛 공해 조례안 제정에 나선 것은 지난 2년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빛 공해 관련 민원이 수만방해 152건, 농작물피해 145건, 눈부심 4건 등 310건에 이르기 때문이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이나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시민의 생활을 방해하고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의미한다. /박진표기자lucky@

광주전남혁신도시 관련기관협의회 구성

실무회의 거쳐 12월 협약식

전남도는 13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발전 선도를 위해 혁신도시 관련 기관장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나주시장, 15개 이전 공공기관장이 참여한다.

전남도는 11월까지 운영 안과 의견 수렴, 관련 실무회의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하고 12월 중 협약식을 거쳐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협의회 회의는 매년 정기회와 한차례와 필요 시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협의회는 혁신도시의 안정적 광주여건을 조성하고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한다. 지역 인재 유선 채용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추진 등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 방안도 논의한다.

설동진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은 “협의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kroh@

‘독일음악축제’ 참석 광주 온 로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

“연내 전남대 독일어학센터 개설 양국 교류증진 구심체 역할 기대”

지난 11일 밤, 전남대 캠퍼스에서는 음악과 맥주가 어우러진 특별한 축제가 펼쳐졌다. 바로 독일 바이마르 관악 5중주단이 참가한 ‘2013 독일음악축제’다. 음악회가 끝나자 연주자와 관객들은 잔디밭에서 맥주와 다과를 함께 나누며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번 ‘2013 독일음악축제’는 주한독일 대사관이 전남대와 공동으로 한·독 수교 130주년과 파독 광부·간호사 5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것으로 공식기념행사로는 대전, 부산에 이어 세번째다.

이날 로프 마파엘(H.E. Rolf Mafael) 주한독일 대사는 광주일보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80년 5월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전남대에서 한·독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를 갖게 돼 감회가 크다”며 “올해 안으로 전남대에 문을 여는 주한독일 문화원 어학센터가 광주와의 교류증진을 위한 구심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프 마파엘 대사는 1955년 독일 브루흐잘에서 출생해 하이델베르크와 베를린에서 법학을 수학했다. 1985년 독일의부부에서 근무를 시작, 제네바, 테헤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나토 상설대표부 근무, 유럽정책조정과장, 유럽국 담당관 등을 거쳐 지난 2012년 주한독일대사로 부임했다.

민주화·예술·음식의 도시 광주 인상적 남북 분단 수습엔 내적 통일에 역점을

-지난해 한국에 부임한 이후 첫 광주 방문이다. 광주에 대한 인상은.

▲광주는 80년 5월 항쟁이 싩던던 민주화의 도시이고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는 예술의 도시여서 꼭 방문하고 싶었다. 특히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 사람들에게 광주는 옛 동독시절 민주화의 진원지였던 라이프치히와 유사해 ‘한국의 라이프치히’로 잘 알려져 있다. 짧은 일정 때문에 많이 둘러보지 못했지만 경치가 아름답고 역동적인 기운이 느껴진다. 광주에 가면 꼭 음식을 맛보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알겠더라. 조만간 다시 방문해 맛있는 음식들을 더 즐겨야겠다.

-한독수교 130주년과 파독 광부·간호사 50주년이 갖는 의미는.

▲한국광부와 간호사들은 양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산증인이다. 가난한 조국을 위해 젊음을 바쳤던 이들의 희생으로 한국이 경제부흥의 기틀을 마련한 것 처럼 독일 역시 이들의 노동력 덕분에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 낼 수 있었다. 수교 이후 양국은 지난 25년간 교역 규모가 2002년 미화 120억 달러에서 2012년 250억 달러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한국을 찾는 독일 관광객도 같은 시기에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급증했다.

-광주는 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가 열리는 예술의 도시다. 광주와 독일의 예술교류를 지원할 계획은 있는가.

▲물론이다. 독일은 경제분야 뿐 아니라 양국의 예술과 교육분야의 교류에도 관심이 많다. 독일이 ‘2013 한국국제아트페어’(10월3~5일)의 주빈국으로 참가했던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특히 광주와의 문화교류는 올해 안에 전남대 출판부 건물을 리모델링해 개관하는 주한독일문화원 어학센터를 중심으로 펼쳐질 것

이다. 독일어 강좌는 물론 유학정보, 전시회, 공연 등 독일과 유럽의 문화를 광주에 소개하는 창구가 되도록 하겠다.

-오는 11월 9일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24년이 되는 날이다. 분단과 통일을 겪은 경험을 살펴 한국인들에게 조언을 준다면.

▲독일인들에게 통일은 ‘어느날 갑자기’ 다가왔다. 미처 통일 이후를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엄청난 변화를 겪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다. 옛 동독의 사회복지가 그대로 통합되면서 통일전체 비용이 1조 6000억 유로 가운데 1조가 여기에 들어갔다. 이런 ‘과도한’ 비용 때문에 혼란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노동인구 증가 등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국 역시 남북한이 통일되면 노동력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독일 국민들의 마음속 내적 통일은 훨씬 더 오래 걸린 것 같다. 남북한은 수십년간 분단국가로 살아온 만큼 문화적차 해소와 같은 내적 통일의 시간을 줄이는 데 역점을 뒀야 한다.

/박진현 기자 jh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원 박사 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과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계림동 ● 금남로
대한생명 ● 주자명 병원 ● 고객 주차장
구. 한미쇼핑 ● 동부소방서 ● 북경당 한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080130-공-26%로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 질환자 대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국내 주요 종합병원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질환자를 대상으로 복합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1. 참여대상
만 18세 이상 만 80세 이하의 성인 남녀로
- 고혈압, 고지혈증 동반 질환자로 고혈압 약물,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
- 또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물 미복용시 혈압(수축기 혈압/이완기 혈압)이 130mmHg / 80mmHg 이상에서 180mmHg / 110mmHg 미만, LDL-콜레스테롤 100mg/dl 이상, 중성지방 400mg/dl 미만이신 분
- 또는 그 외 진료를 통해 기타 조건이 만족되시는 분

2. 참여에 따른 제공사항
- 혈액 및 뇨검사 / 신체검사 / 심전도 검사 / 24시간 혈압 검사
- 임상시험용약품 제공
- 진료비 및 검사비 제공 / 정규 방문시 소정의 교통비 지급

3. 참여 기간 및 방문횟수
선별검사로부터 임상시험 종료시까지 총 14주이며, 이 기간 동안 총 7회 병원 방문 (경우에 따라 참여 기간 및 방문 횟수 변경됨).

4. 연구기관 : 국내 주요 종합병원

5. 연 락 처 : 본 임상시험에 참여 의사가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요.

상담원(콜센터) 연락처 : 070-4495-1096